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함을 향한 매니페스토

김우빈과 안야 테일러 조이가 함께하는 새로운 영상

올가을, 예거 르쿨트르는 190 년의 역사 동안 그랑 메종을 이끌어온 가치인 인내, 겸손, 노력, 탁월함을 향한 헌신을 기리는 새로운 시리즈 영상을 선보입니다. 발레드주 매뉴팩처에 자리한 여러 세대의 엔지니어와 워치메이커 그리고 장인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주는, 경이로운 180 가지의 다양한 기술을 아우르는 탁월한 노하우의 유산을 쌓아왔습니다.

약 2 세기 동안 매뉴팩처는 1,400 점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를 제작함으로써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430 건이 넘는 특허 중 다수가 시계 역사에 눈부신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랑 메종은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계 무브먼트를 설계 및 생산, 조립했으며 자체 시계뿐만 아니라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권위 있는 브랜드를 위해서도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로써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졌습니다.

탁월함이 탄생하는 순간을 향한 경의

예거 르쿨트르는 어느 창작 활동과 마찬가지로 워치메이킹에서의 탁월함이란 인내와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작은 성과를 이어 나가며 재능을 기술로 갈고 닦음으로써 위대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집중과 노력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영감의 순간은 수년간의 배움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전문성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셀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부터 연습하고 완벽하게 다듬어 나감으로써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단계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는 음악, 예술, 공연, 문학, 디자인뿐 아니라 워치메이킹 분야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거 르쿨트르의 매니페스토이기도 합니다.



2023년 가을, 예거 르쿨트르가 탁월한 재능을 지닌 글로벌 앰버서더, 김우빈과 안야 테일러 조이(Anya Taylor-Joy)가 함께하는 새로운 영상을 선보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기원을 담은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노력, 하나의 제스처, 움직임, 카메라 앞에서 표현되는 한 마디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기 위해 수 년간 이어지는 연습의 과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단편 영상은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와 안야 테일러 조이가 등장한 이전 캠페인 영상에 이어 시작되며 리베르소는 계속해서 비주얼 내러티브의 초석이 되어 줍니다. 꿈 같은 정경 속에 현실, 비현실, 초현실의 개념을 활용하고, 거대한 역광 큐브가 돋보이는 미니멀한 배경을 통해 김우빈과 안야 테일러 조이의 이야기가 서로 엮이면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내러티브는 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월해 보이는 이들의 독창성 뒤,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력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며, 이는 자연스레 워치메이킹 기법과 장인 기술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자리 잡게 됩니다.

탁월함이라는 은유

새로운 영상에서 김우빈은 정교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스틸, 그리고 안야 테일러 조이는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리베르토 듀에토 스몰 핑크 골드를 착용했습니다. 강렬하고 아름다운 두 앰버서더의 인물 사진으로 더욱 풍성함을 더한 이번 영상은 인물 사진과 함께 각 타임피스와 무브먼트 클로즈업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여 모든 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에 깃든 독창적인 열정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한층 강조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간결한 아르데코 스타일의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앞면 다이얼과 정교한 장식이 돋보이는 스켈레톤 뒷면 다이얼을 갖추고 있으며, 두 번째 시간 디스플레이와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리버 860 무브먼트는 원형의 크로노그래프와 시간 디스플레이를 직사각형 케이스 안에 배치했으며 다이얼 상단에 커다란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다이얼 하단에 반원형의 레트로그레이드 30분 인디케이터를 장착하여 우아하고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낮/밤 디자인이 돋보이는 리베르소 듀에토 스몰은 색다른 분위기를 지닌 두 개의 다이얼로 시간을 표시하며, 폴리싱 처리된 골드 링크를 갖춘 브레이슬릿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앞면 실버 다이얼은 선레이 브레싱으로 여전히 클래식한 매력을 전하고, 동시에 뒷면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가드룬 장식이 극적인 블랙 래커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31년 첫선을 보인 이후, 리베르소는 계속해서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새로운 영상에 등장하는 두 모델 모두 재해석을 향한 무한한 잠재력의 정수를 담은 타임피스로서 기술 개발 및 미학적 디자인 모두에서 끊임없이 탁월함을 지향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탐구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매니페스토

탁월함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장인 정신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헌신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데려가고,

계속되는 도전은 우리를 완벽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최고의 작품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시계, 그 너머의 시간까지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에 있는 웅장한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항상 시간과 함께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김우빈 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우빈은 2011 년 TV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는 신사의 품격(2012 년)에서 연기력을 인정 받고, 학교(2013 년), 상속자들(2013 년) 그리고 함부로 애뜻하게(2016 년)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친구*(2013 년), *기술자들*(2014 년), *스물*(2015 년) 등 수많은 흥행작에 출연했습니다. 6 년 만에 복귀한 그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2022 년)와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 부*(2022 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최근 올해 5 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SF 시리즈 *택배기사*에 출연 중입니다. 그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야 테일러 조이 소개

1996 년 마이애미에 거주하던 영국계 아르헨티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안야 테일러 조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런던에서 자랐으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15 세까지 발레를 배운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여 2015 년 로버트 에거스(Robert Eggers)의 *더 위치(The Witch)*에서 놀라운 연기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에드가 라이트(Edgar Wright)의 *라스트 나잇 인 소호*에서 매혹적인 노래 실력을 드러냈으며 그 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 년 넷플릭스 흥행작 *퀸스 Gambit(The Queen's Gambit)*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베스 하먼(Beth Harmon)이라는 체스 천재 역할을 매력적으로 연기한 그녀는 골든 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로버트 에거스의 *노스맨(The Northman)*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2022 년 안야 테일러 조이는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 마고 로비(Margot Robbie)와 함께 데이비드 O. 러셀(David O. Russell)의 암스테르담(Amsterdam)뿐만 아니라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 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와 함께 마크 미로드(Mark Mylod)의 코미디 호러 영화 *더 메뉴(The Menu)*에 출연하여 이후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안야 테일러 조이는 최근 2024 년 5 월 개봉 예정인 *매드 맥스(Mad Max)*의 프리퀼 *퓨리오사(Furiosa)* 촬영을 마쳤습니다.
